

이룸소식 2015 10호

미국 금리 인상의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9월이 마무리 되고 어느덧 2015년 10월과 함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현황

지난 7월 21일 시작된 주식시장의 조정은 지난 달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우려와 중국의 위안화 가치하락 및 경기둔화 우려로 촉발된 조정이 8월 중에는 외국인 매도와 함께 크게 심화되었지만 9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또 중국시장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큰 악재는 나오지 않으면서 심리가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6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된 외국인들은 10월 중에도 여전히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나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과 증권사 등 기관들은 순매수로 지속하면서 주식시장의 지수 반등에 기여하였습니다.

9월 중 종목별로는 코스닥 및 개별 종목들이 조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 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 제조업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지수는 약 1.1% 상승하였으나 코스닥지수는 추가로 1.3%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운용경과

이룸은 8월 이후 중소형 개별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형우량주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낙폭이 컸던 대형유통주 및 삼성전자, 현대차 관련주 등 최근 환율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중 조정이 수익률 방어에 기여하였으나 그 동안 비중이 높았던 개별종목들의 주가조정으로 인해 월간 수익률은 소폭 하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식형 스타일의 기관자금의 수익률은 1% 하락 이내의 미세한 것이었으나 개인고객 중

심의 중소형 가치 스타일의 하락률은 약 1.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용성과는 아쉽지만 연초 이후 이룸의 중소형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이 매우 컸던 점과 9월 중순 이후 지수반등이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양호한 성과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시장전망

8월 한 때 조성되었던 공포감은 9월 말 종합지수가 1962포인트까지 회복되면서 많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반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내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의 흐름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은 얼마간 상승 후에는 다시 횡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계획

이룸의 포트폴리오 조정작업은 대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을 유지하면서 각각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종목들이 10월 이후 이룸의 수익률에 기여하여 연말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